



홍보부

IMF한파에 농약업계 공공공공

연지급수입 어렵고 부도·환차손 등 자금난에 시달려

1997

년 12월 3일을 우리는 "경제 국치일"이라고 부르면서 어찌다가 우리 나라 경제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에 모든 국민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조속한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농약업계도 지난해 11월28일 개최된 '9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총회에서 현 경제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신 물질 개발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의 60%를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합성 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조차 80%이상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농약산업계의 현실은 암울함을 지나서 참담한 실정이다.

부도에 시달리는 농약업계

지난해의 우리 나라 농약 총 매출액은 '96년보다 3백40여 억원이 증가한 6천5백여 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농약 업계의 매출액이 이렇게나마 다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도작에서 초기에 발생한 벼물바구미와 후기에 발생한 벼멸구 방제를 위한 매출액 증가가 큰 힘이 되었다.

농약 업계는 이러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도매상의 부도와 만성적 재고누적이라는 대홍수를 맞아 살아남기 위한 제방 쌓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짙은 먹구름이 언제쯤이나 거칠지, 아니면 또다른 태풍으로 몰아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체 마음 조이고 있다.

농약 제조업체는 또 농약도매상의 재무구조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나친 도매상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 직영의 영업소를 증설하거나 소매상의 비중을 늘리는 등 물량의 적정한 배분에 나서자 이제까지 안이한 자세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광주의 서울농약, 익산의 부흥농약 등 도매상의 부도가 잇달아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그 어느해보다 힘든 한해로 평가된다.

업계에 불어닥친 IMF 한파

또한 업계는 작년의 경우 성분량으로 총 3만4백여 톤에 해당하는 농약을 확보했으나 2만4천4백여 톤이 출하되고 약 20%인 6천여 톤이 공장재고로 남아 있으며 농협은 자체 구입량 중 2천9백여 톤을 재고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난해 총 확보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9천3백여 톤(성분량) 상당의 농약이 재고로 남아 자금압박을 더욱 가중시켜 업계는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농약업계 역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사업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우리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부실한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을 지난 연말까지 정지시킨데 이어 추가로 5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을 올 1월말까지 정지시켰다. 또한 앞으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단행기로 함에 따라 금융계는 자금책마련을 위해 신규대출을 중지하고 오히려 대출금 회수에 적극 나서는 등 비교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업계의 자금난은 비상구조차 찾을 수 없는 IMF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상의 부도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겪어야 했을 과제였다고 생각한 농약업계는 지난해 초부터 허리띠 졸라 매기에 나섰다. 그 충격이 재고누중 및 오늘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이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어느 만량이 나 더 늘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먹구름 속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원료구입에 2천6백억 추가부담

지난해 12월 10일의 대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매도액 기준 1,500원으로 같은해 2월의 평균 환율 850원에 비해 무려 76%나 원화가 평가 절하되었다.

이와 같은 원화의 가치하락은 원제 구입비를 미화로 결제해야 하는 농약업계에는 이미 구입한 원료대금 결제를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속수무책으로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암담한 실정에 처해 있다.

농약업계가 지난해에 원제나 원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자금은 약 3천5백억원(4억1천만\$)으로 추정되는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원료를 구입한다면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이 약 2천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부담은 환율이 1,500원 선에서 안정될 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율 1,500원에 60% 인상요인 발생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어쩔 수 없이 농약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농약가격중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 정도이다. 각종 세금이나 인건비 등 모든 구성 요소에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고 환율 인상 요인만을 감안해도 지난해 농약가격 결정 때의 환율 850원과 비교하여 1,100원에서는 18%, 1,200원 25%, 1,300원 34% 1,500원에서는 4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원료 가격인상, 제조경비 등을 감안하면 환율 1,500원에서 무려 60%

의 농약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오른 기름 값은 피할 수 없는 물류비용 상승요인이 되었고 각종 포장자재의 가격 인상 역시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상 요인이다. 더욱이 이번 IMF협상에서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세금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만큼 농약가격 인상요인은 여러 부문에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약은 대 농민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곡가 인상과 연관지어 결정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한 번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올해의 농약가격 인상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서 농약업계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푸대접받는 연지급결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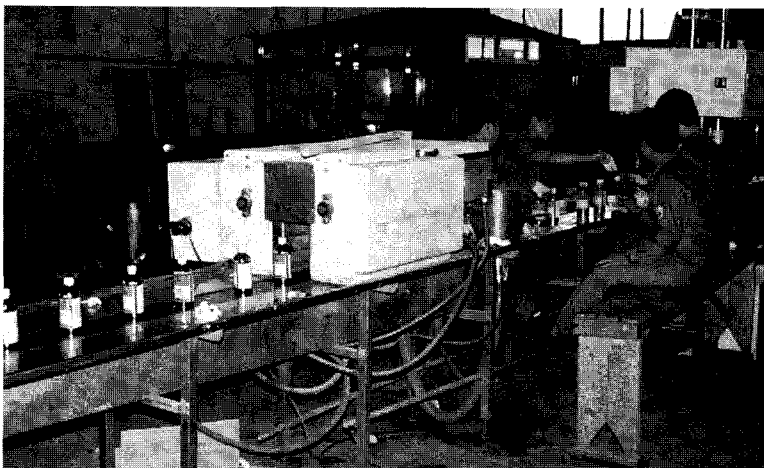
농약업계를 더욱 암울한 지경으로 몰아 넣는 또 한가지 요인은 우리 나라의 대외 신인도 저하 및 환율 불안에 따른 외국 원재 공급사의 연지급(D/A) 결제 조건의 회피이다.

우리 나라의 연지급수입에 따른 대금 결제 기간은 동남아 지역은 60~90일, 구 미 지역은 90~120일 정도이나 국내에서 판매한 농약대금의 회수기간은 약 250~300일 정도 걸린다.

각 금융기관이 IMF 구제금융 조건하에서 자금회수에 급급하는 경색된 자금 유통여건 아래서 농약대금은 10개월 후이나 회수가 가능한데도 그 원료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질식 직전에 있는 업계의 숨통을 더욱더 조이는 것으로 농약 업계의 어려움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돌발 병해충 방제에도 적신표

이와 같은 IMF의 경제불안은 올해의 병·해충 방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농약산업을 흔히 “계절산업”이라 하듯이 농약 사용량은 그해의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발생상황이 어떻게 변화



농약업계의 비상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원료가격이 7%만 상승해도 37.2%의 인상요인이 발생... 굳이 “農者天下之大本”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무시한 국가발전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

농약업체가 지난해에 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자금은 약 3천5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도 이 정도의 원료를 구입한다면 환율이 1천3백원에서
 환율인상만으로 2천6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

는가에 달려 있으나 장기적 기상 변화나 병·해충의 발생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약은 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고, 공장을 재 가동하는 데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소요되는 등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공산품과 달리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허룻밤 사이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비한 원재나 농약의 비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금압박이 극심하고 미화나 현금 결제를 강요받는 여건에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없이 재고 부담이 따르는 농약을 비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올해도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를 전망하고 있어 돌발 병·해충을 대비한 비축물량 확보는 IMF경제 체제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자구노력

농약 업체는 불안한 환율과 극심한 자금난으로 올해의 사업계획조차 확정 짓지 못한 채 우선은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해외출장을 자제하며 복지후생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자연 감소인원의 충원을 유보하고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등 각종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과다 생산을 방지하면서도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꾀하기 위해 면밀한 재고파악으로 적정물량만을 생산하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 자재 및 방법을 개발해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업체는 이러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원재업자의 연지급수입 조건의 공급기피와 자금차입이 지극히 어렵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와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농협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 절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체는 짧은 기간에 많은 자금을 일시에 투자해야 하는 농약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원재 구입자금의 50%인 약 2천5백억원을 농어촌 지원자금중에서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농협은 금년도 농약구입 신청액의 80% 정도를 계약 체결 전이라도 선도자금으로 지원하고 돌발 병·해충 대비한 비축물량은 생산자금을 선 지원하여 별도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요청사항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모든 생산자재의 원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현 상황에서 업체는 대 농민 봉사사업과 주곡달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농약정보**